

## World Artist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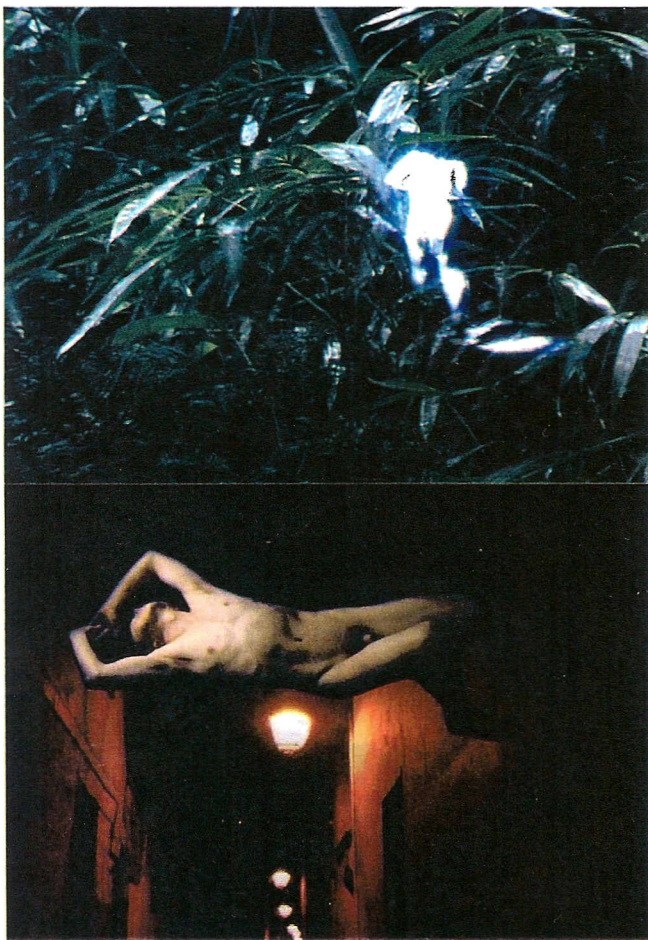
## 존재와 근원을 향한 여정

## - 윤애영 (Yun Aiyoung)

글/ 이지연(파리 통신원)

11월 중순, 가을의 끝이라고 그렇다고 겨울의 시작이라고도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계절과 계절의 중간 지점에서 작가 윤애영을 만났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 생성과 소멸, 시작과 끝, 혹은 그 세계의 영원한 중간지대, 이러한 시간의 변함없는 대순환 안에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작업을 통해 끊임 없이 시도하는 하나의 영혼을 이 계절의 문턱에서 만났으니 말이다.

현재 윤애영은 프랑스의 레 피 뒤 칼베르갤러리(Galerie les filles du calvaire) 전속작가로 활동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카르나발레미술관(Musee Carnavalet)에서 열리고 있는 삼차원의 파리(Paris en 3D)전에 초대되어 「심연」이라는 제목의 비디오 작업을 전시하고 있다. 한때 조&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두 사람의 존재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식의 표현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테마로 단독 제작한 「어비스(Abysses, 심연)」는 그 동안 묻혀져있던 영혼이란 존재에의 회귀를 통해 육신도 영혼도 아닌, 그간의 존재에의 탐구에서 때로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영원한 합일을 꿈꾸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2000년 마드리드의 국제아트페어에 설치했던 「교차(Intersection)」와 1998년 현대갤러리에 의해 발표된 「잃어버린 시간(Le temps perdu)」의 단독 작업과 비디오와 사운드 설치 작품이었던 「맨드레이크의 노래(Chanson de Mandrake)」, 입체비디오 영상 사운드 설치작 「타임큐브(Time cube)」, 「흔적(Trace)」등 조&윤이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들이 있다.



위 「교차(Intersection)」 비디오 설치 2000  
아래 「심연(Abysses)」 비디오 설치 2000

**프랑스에서 작업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 그리고 현재의 비디오 작업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건가?**

파리에서 작업을 한 지 10년이 되었고, 초기에는 다른 유학생들처럼 학교를 다녔다. 파리에 폴 드 보자르를 94년도에 졸업했고, 파리 8대학에서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비디오 작업은 보자르 졸업 후 영국에 잠시 있을 때 우연한 계기를 통해 시작하게 되었다. 이전에 그림을 그리면서도 뭔가 허전하고 약간의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그건 아마도 내 기질이 지금하는 작업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작업실을 봐서 알겠지만 그림을 한다는 사람의 작업실이 아니라 무슨 전파사에 온 것 같지 않은가? 뭔가 내 작업을 불요불망으로 오셨던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 나는 이런 게 좋다. 오죽했으면 한국에서 처음 이곳으로 유학을 올 적에 다른 건 몰라도 공구란 공구는 모두 챙겨왔겠는가. 비디오 작업 초에는 환경 설치와 사진, 포토 프리뷰와 함께 퍼포먼스를 많이했고, 그리고 조&윤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작업을 했었다. 지금처럼 혼자 단독으로 떨어져나와 작업을 한 지는 얼마 안되었다.

**자신에게 있어 테크놀러지를 이용한 작업은 어떤 의미가 있나?**

원래 오브제나 기구들을 이용한 작업들을 선호해왔다. 아까도 말했지만 평면 작업을 하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고, 작업 방식을 전향하면서 그 부분들이 채워졌다. 지금 현재로서는 비디오라는 매체에 만족하는데 퍼포먼스를 그만둔 것도 영상 자체가 주는 매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비디오 작업이라는 건 필요 불가결하게 시간성을 간과할 수 있는 건데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시간에 대한 관심들이 이 방법과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데도 선택 동기가 있을 수 있다. 나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분들은 모두 잘 알겠지만 비디오는 촬영부터 시작해서 편집, 마무리, 그리고 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작품에 포함된다. 물론 관람자들이 그 작업을 감상하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고 그림과는 반대로 전시 후 완벽하게 재현, 보존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단점이라기보다는 비디오 작업의 특성이라고 말하는 편이 오히려 현명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했던 작업을 철수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약간의 허무한 감정에서 다시금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영역 안으로 결집시킬 수 있었는지 모른다.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은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가? 흘러가는 구름처럼 혹은 어딘가에 있을 자신의 근원을 향해 끊임없는 여정을 멈추지 않고 반복해 움직이는 물처럼 모든 것들은 생성과 소멸의 순환 속에 놓여있다. 만지는 제스처가 있되 만질 수 없는 것, 보여지되 보여질 수 없는 것, 한마디로 레이저(비디오 아트)는 시간의 길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비디오 작가로만 한정짓지는 않는다. 테크놀러지를 이용한 비디오 작업은 내가 몸담고 있는 시대의 특성과 함께 선택한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작업을 하면서 나는 즐겁고 재료로서의 비디오가 내게 보여준 가능성은 언제나 나를 매료시킨다. 시대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미술도 변화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지나 앞으로 다른 어떤 새로운 방식의 테크놀러지가 대두, 발전하는가에 따라 내 작업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될 것이다. 단지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붙는다면 내가 취하는 그 방법이 내게 자연스럽고 또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작가와 작업의 역할과 관계, 그리고 감상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개인적 의견이 있다면?

작업이라는 것은 작가의 마지막 손길을 거친 후에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작업에 임할 때 내가 가진 생각들이 있고 분명히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 순간을 떠나 작품들이 관람자들 앞에 섰을 때, 감상자가 느끼는 그것이 바로 작업, 작품이며 진정한 의식의 표현이며 그것을 의도하는 것이다. 나는 관객에게 모든 것을 다 던져주고 싶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열렸던 마드리드의 국제아트페어 아르코(ARCO)에 출품했던 「교차」 작업을 보면 여러 개의 화면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관객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도록 설치되었다. 간혹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내 작업이 홀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작업으로 오해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내 작업은 공간작업이다. 같이 움직이고 같이 생각하고, 결국 작품과 관객, 전 시공간 자체가 하나가 되어 전시를 통해 제시한 시간 속으로의 여행에 동참하는... 물론 그들이 느끼는 것은 내 작업이라는 하나의 오브제를 통해 유추해내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들이겠지만 그건 우리 모두가 다르듯이 당연한 것이다. 예술가들의 역할이란 건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표적은 있지만 그 표적은 관객 스스로가 짚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작가와 작품, 그리고 관객의 역할이며 목적이요 그들 상호간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 작업에서 보여지는 시간성에 결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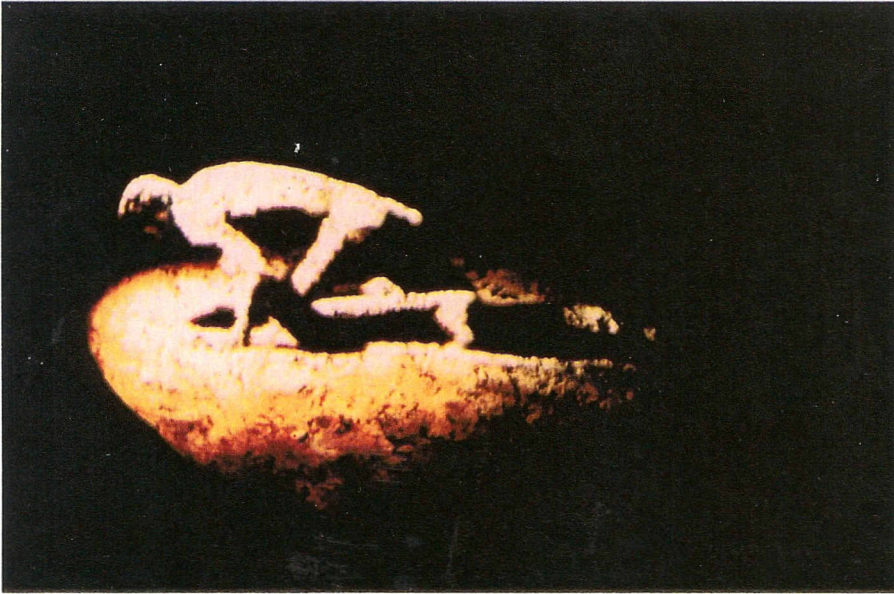
이전에는 근원에 대한 것을 군중의 모습에서 그리고 내가 언제나 벗어나고 싶었던 시간 안에서, 어떤 한계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그 표현에 앞서 그와 연관된 질문들을 던졌었다. 그리고 그것은 군중들 안에서 낯선 타자에서 심지어는 내가 태어난 모국에서조차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이라는 감정을 낳았고, 이것은 가상현실에 대한 일종의 관심을 불러오게 했다.

그것이 관심이든 혹은 확신이든 어쨌거나 만화같은 영화같은 세계 속에 혼자 들어가 있는 듯한 이방인으로서의 동떨어진 느낌을 작업으로 옮겼다.



「잃어버린 시간(Le temps cerdu)」 비디오 설치 1995





「흔적(Trace)」 비디오 설치 1998



나는 이러한 시간의 흔적들이 조각이 되어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것만 같다. 그러나 떠돌고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시각에서 본 것이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형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는 시간을 한계가 아닌 무한대로 펼쳐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약간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안에 어딘가 평행선 상에 존재하고 있을 나의 또다른 모습을 찾고싶은 것이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일상에 대한 내 주변에 대한 관심과 함께.

#### 작업의 철학적 근원에 대한 사상가나 사조들이 있다면?

한때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구루였던 오쇼 라즈니쉬의 신지학의 아버지인 크리슈나무르티의 정신세계에 빠져있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신비주의자들이나 명상가들의 가르침을 채워주었고 어쩌면 작업에 등장하는 끊임없이 어디론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인간 형상들에 대한 뿌리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삶과 죽음의 연장선 상에서 지칠 줄 모르며 걷고 또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작가라면 누구든지 마치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이 세상에 내놓는 자신의 모든 작업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타인에 의해 어떤 평가를 받든지 스스로에게 진실되었다면 말이다. 그래도 굳이 예를 들자면 아마도 나는 조와 함께 작업했던 흔적을 말해야 할 것 같다. 작품의 완성도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치더라도 그 안에는 내가 바라보기만해도 좋았던 돌이 오브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나는 여행을 할 때마다 돌아오는 길에 무언가를 집어오는 습관이 있는데 그 돌도 언젠가 여행지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웬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돌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1998년에 제작되었던 '조&윤'의 이 비디오 설치작업은 프랑스의 평론가 장 폴 파르지에에 의해 차가운 테크놀러지와 고대 동굴 예술을 연상케하는 일중

의 인간적 따스함을 절묘하고 완벽하게 일치시켰다는 극찬을 받은바 있다)

#### 비디오 작업 안에 소리가 주는 의미는?

영상 작업에 있어서 소리는 작품에 하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 작업과 함께 하는 소리들은 언제나 직접 만든다. 내가 듣고싶고 내가 원하는 소리들을(주로 사람이 내는 소리나 자연에서 파운 소리들을) 스튜디오 녹음과 컴퓨터 작업을 거쳐 제작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오브제의 공간을 이용한 작업들을 조금 더 하고싶고 내년에 바르셀로나 폰나시옹메트로놈(Fondation M tronom)과 알라칸테의 미술관(Musee Universit d'alacant)에서 초대 개인전이 있을 예정이다. [m](#)

작가 윤애영은 이화여자 대학교 서양화과와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파리 에콜 드 보자르 E.N.S.B.A) 및, 파리 제8대학 조형 예술학과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 동안 파리국제아트페어 피악(FIAC), 제2회 광주비엔날레, 한·일현대미술전, 제10회 인터내셔널비디오&테크놀러지아트페스티벌 등 국제전에 참가했으며 파리, 마드리드, 런던 등에서 5회의 개인전을 가진바 있다. 현재 프랑스의 레 피 뒤 갈베르갤러리(Galerie les filles du calvaire) 전속 작가로 활동 중에 있다.

글쓴이 이지연은 성신여자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현재 프랑스 파리 제8대학에서 조형 예술을 전공하고 있다.